

KWC 2020 FRENCH WINE



와인을 논할 때 프랑스를 빼놓을 수는 없다. 재배와 양조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 산지의 와인 품질이 상향 평준화됐지만 국제 와인 시장에서 프랑스가 갖는 무게감은 여전하다.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에도 마찬가지다. KWC가 15회 이상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는 꾸준히 수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 호에는 KWC 2020에서 수상한 프랑스 와이너리와 이들이 소속된 와인 생산 지역 8곳을 소개한다.

글 <Wine Review> 편집팀 사진 Wikipedia, Pixabay



BORDEAUX 보르도

보르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라 해도 이견이 없을 곳이다. 워낙 이름난 곳이어서 와인 초보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산지다. 또 와이너리를 칭하는 '샤또'의 개념이나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등을 블렌딩하는 일명 보르도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벤치마킹된 사례들만 봐도 그렇다. 보르도 지방은 프랑스 국토의 서남부 지방에 자리 잡고 있다. 행정구역은 아키텐 지방에 속한다. 이 방대한 지방에는 세 개의 큰 강(가론느, 도르도뉴, 지롱드)이 흐르는데, 이 강들을 중심으로 보르도는 크게 좌안과 우안으로 나뉜다. 좌안은 그 유명한 '1855년 등급'의 배경지다. 메독, 오메독, 그라브, 빼삭 레오냥, 소테른이 이에 속한다. 그 중 오메독에는 생페스테프, 뵘이약, 생질리앙, 마고 등 유명한 마을들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우안에는 생페밀리옹, 뿔므롤, 프론사 등이 있다. 보르도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대부분 레드 와인으로, 여러 품종을 블렌딩한다. 허용되는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말벡, 뽀피 베르도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좌안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우안에서는 메를로가 메인이다.

▶ Vignobles Gabriel & Co

비노블 가브리엘 & Co

1904년 가브리엘 브루네투(Gabriel Bruneteau)는 보르도 지방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생 오빈 드 블레(Saint Aubin de Blaye)에 포도밭을 발견한다. 와인에 대한 열정이 컸던 그는 1921년부터 와인 생산에 돌입했다. 이후 자손들은 농사의 규모를 늘려갔고 포도밭에는 위니 블랑(Ugni Blanc)만을 재배하게 된다. 1985년에는 설립자의 증손자가 경영을 이어받으며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현재까지 81ha로 포도밭을 확장하며, 고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Vignobles Gabriel & Co Puisseguin St Emilion
- Silver** Vignobles Gabriel & Co Castillon Cotes de Bordeaux
- Silver** Vignobles Gabriel & Co Castillon Cotes de Bordeaux
- Silver** Vignobles Gabriel & Co Cotes de Bourg
- Silver** Vignobles Gabriel & Co Francs Cotes de Bordeaux
- Silver** Vignobles Gabriel & Co Graves
- Silver** Vignobles Gabriel & Co Lussac St Emilion

▶ Chateau Plagnac 샤또 플라낙

샤또 플라낙은 보르도의 생산자, 앙투안 무에(Antoine Moueix)의 브랜드 가운데 하나다. 동명의 설립자가 1902년에 차린 네고시앙 업체에서 출발했다. 현재 보르도 지롱드 강 하류의 메독과 생페밀리옹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한다. 포도밭 면적은 총 19ha에 이르며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은 토양과 떼루아에서 메를로와 까베르네 소비뇽을 주 품종으로 길러낸다. 양조 과정은 전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Chateau Plagnac

Jean-Noel Boidron 장 노엘 보이드롱

보이드롱 가문은 1760년대부터 생페밀리옹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해 왔다. 현재 7대째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가문 소유의 포도밭은 생페밀리옹을 시작으로 뿔므롤 국경 근처 5곳에 펼쳐져 있다. 그중 7.1ha의 꼬르빈 미쇼트(Corbin Michotte)는 1726년에 만들어진 포도밭으로, 이곳에서 메를로 65%, 까베르네 프랑 30%, 까베르네 소비뇽 5%를 재배한다. 한편 이들은 와인 발효에는 주로 시멘트 탱크를 사용하고, 병입 전 70%는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숙성한다. 수입사 비노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Chateau Cantelauze **Bronze** Chateau Corbin Michotte

▶ Chateau de Belcier 샤토 드 벨시에

샤토 드 벨시에에는 18세기 말, 생떼밀리옹 인근에 세워진 와이너리다. 꼬뜨 드 까스띠옹에 자리한 벨시에의 포도밭은 보르도에서 가장 오래 된 밭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벨시에에는 이곳에서 길러낸 포도와 전통을 잘 따른 양조방식으로 양질의 포도를 빚는다. 긴 시간 양조해 온 노하우로 우수한 품질을 드러내며 많은 호응이 따르는 생산자다. 다양한 경영 체제를 거쳐 오다 1986년부터는 보험회사 그룹 MACIF가 소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hateau de Belcier

Bronze Le Coq de Ramage **Bronze** Le Pavillon de Ramage

Lateyron 라떼론

생떼밀리옹 지역에서 라떼론 가문이 운영하는 와이너리다.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생 조르주(Saint-Georges) 지역에 머물던 일가는 20세기 초중반에 몽타뉴(Montagne)로 거점을 옮겨 와인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코린 라떼론(Corinne Lateyron)과 리오넬(Lionel) 등 후손들이 가족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는 조상의 땅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빌린다는 모토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hateau Tour Calon

Maison Bouey 메종 부에이

1821년 메독 지역의 포도밭을 구입하며 와인 양조를 시작한 메종 부에이는 와인 생산자이면서 네고시앙이기도 하다. 메종 부에이가 소유하고 있는 샤토 메종 블랑쉬는 19세기 보르도 와인 바이블에 소개된 유명한 와이너리로, 1932년에 크뤼 부르주아 등급을 받았다. 최근 메종 블랑쉬는 '보르도 와인의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스테판 드흐농꾸르(Stephane Derenoncourt)의 자문을 받아 와인 품질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Demoiselle de Maison Blanche

Chateau Ramage La Batisse 샤토 라마주 라 바티스

메독의 중심부인 생쑤비트르에 위치한 샤토 라마주 라 바티스는 85ha의 포도밭에서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를 각각 절반씩 재배한다. 이들은 변함없는 고품질의 와인 생산으로 해외 시장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으며, 각종 와인 컴퍼디션에서도 수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2003년, 메독 지역 와인 분류 체계인 크뤼 부르주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크뤼 부르주아 수베리에로 승격한 바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Ramage La Batisse



RHONE 론

프랑스 남동부 론 강가를 따라 형성된 와인 산지다. 최상급 보르도와 부르그뉴 와인에 필적하는 고가, 고급 와인이 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크게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구분한다. 같은 지역으로 묶이지만 두 지역은 생산 포도 품종과 테루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북부 론은 강에 인접해 길이 좁고 경사가 가파른 곳에 포도밭이 조성돼 있다. 와인 양조에 쓰이는 품종은 레드에 시라, 화이트에 마르산느, 루산느, 비오니에다. 꼬뜨 로피, 콩드리외, 생 조셉, 크로즈 에르미따주, 에르미따주, 코르나스 등이 잘 알려진 북부 론 산지다. 남부 론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해당돼 산간이나 비교적 완만한 재배 환경을 갖췄다. 포도는 레드에 그르나슈, 시라, 무르베드르가 주로 쓰이며 화이트에는 그르나슈 블랑, 끌레레뜨 블랑슈, 마르산느, 루산느, 부르블랑, 비오니에 등이 쓰인다. 산지로는 샤토뇌프 뒤 빠쎌, 지공다스, 파벨, 바께이라스 등이 유명하다.

▶ Domaine Yann Chave 도멘 얀 샤브

얀 샤브는 프랑스 북부 론 지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와인 생산자다. 크로즈 에르미따주의 중심부에 속하는 20ha 규모 포도밭에서 유기농 재배 방식에 따라 와인을 만든다. 유력 와인 매체인 <Decanter>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와인메이커로 얀 샤브를 꼽기도 했다. 프랑스 현지에서 미술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들이 얀 샤브 와인을 앞 다투어 리스트업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Domaine Yann Chave Crozes Hermitage Rouge

▶ Domaine Roger Sabon 도멘 로저 사봉

로저 사봉(Roger Sabon)이 1952년 설립한 남부 론 지역의 가족 경영 와이너리다. 론 강에 인접한 지역에 포도밭을 두고 여러 세대에 걸쳐 운영을 이어왔다. 대표적인 샤토뇌프 뒤 빠쎌 생산자로, 특질이 제각각인 포도밭을 여러 군데 소유한 데 더해 한 포도밭을 여러 플롯으로 나눠 재배한 포도로 다양한 특성을 품은 와인을 만들어 낸다.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가 로저 사봉을 두고 해당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생산자라 언급하기도 했다. 수입사 나루클로벨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Domaine Roger Sabon Le Sabounet

▶ Delas 들라스

1835년, 샤를 오디베르(Charles Audibert)와 필립 들라스(Philippe Delas)가 꼬뜨 뒤 론의 심장부에 위치한 와이너리를 매입하면서 들라스의 역사가 시작된다. 들라스는 1879년 시드니 만국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갔다. 또 180년 이상의 전통과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론 지역의 Top 4 생산자에 등극하게 되었다. 매년 KWC에서 수상하며 론 와인의 우수성을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알리고 있다. 수입사 레뱅드메일

수상 와인리스트

Gold Delas Cotes du Rhone Saint-Esprit

Gold Delas Gigondas Les Reinages

Silver Delas Crozes Hermitage

CHAMPAGNE 샴페뉴

샴페뉴는 프랑스 와인 생산지 중 가장 북쪽에 자리한 산지다. 가장 유명한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이 이곳에서 난다. 샴페인은 프랑스어인 샴페뉴를 영어로 나타낸 단어다. 일반적으로 샴페뉴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을 이르는 용어로 통용된다. 와인 생산지는 총 다섯 군데로 나뉜다. 오브(Aube), 꼬뜨 데 블랑(Cote des Blanc), 꼬뜨 드 세잔(Cote de Sezanne), 몽타뉴 드 랭스(Montagne de Reims), 발레 드 라 마른(Vallee de la Marne) 등 5개 구역이다. 발레 드 라 마른을 중심으로 발달한 백악질 토양은 샴페뉴 지역 테루아를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다. 지층의 두께만 100m에 이른다. 한낮의 복사열을 품고 있다가 밤이 되면 열을 발산해 일교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일정한 습도를 머금고 포도나무 뿌리가 아래로 길게 뻗어나가게 해 풍부한 미네랄을 가진 포도가 나게 만들기도 한다.

▶ Champagne Deutz 샴페인 도츠

도츠는 샴페뉴 아이(Ay)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샴페인 하우스다. 도츠와 젤데만 가문이 힘을 합쳐 5대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최상급 샴페인 하우스가 모인 그랑 마르께(Grand Marques) 소속으로, 도츠는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에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재배 면적의 75%가 그랑 크뤼, 프리미에 크뤼에 해당하는 밭에서 모든 제품을 첫 착즙인 퀴베로만 생산할 정도로 품질 관리에 힘쓰는 생산자다. 수입사 레뱅드메일

수상 와인리스트 **Gold** Amour de Deutz **Gold** Deutz Brut Classic

Richard Bavion 리샤르 바비옹

젊은 기업가였던 리샤르 바비옹은 고급 샴페인을 만들고자 포도밭을 매입했고, 샴페뉴 그랑 크뤼 지역의 와인 생산자와 합병을 통해 뛰어난 품질의 샴페인을 생산하게 된다. 세련된 보틀 디자인과 레이블로도 와인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편 골드 메달을 수상한 리샤르 바비옹 프레스티지는 몽타뉴 드 랭스 지역에서도 베르지와 베르즈네에 위치한 그랑 크뤼 빈야드에서 수확한 포도로 양조했다. 3개 이상의 빈티지를 블렌딩한 후 3년 이상 지하 와인 셀러에서 숙성을 거쳤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수상 와인리스트 **Gold** Richard Bavion Prestige





LANGUEDOC-ROUSSILLON 랑그독 루시옹

랑그독 루시옹은 프랑스 남부를 대표하는 너른 산지다. 론 강, 피레네 산맥과 인접하며 지중해와 맞닿아 있다. 와인 생산 구역은 남동부 끝자락의 님(Nîmes)부터 스페인 접경 지역까지 이어진다. 전체 300,000ha가 넘는 규모다. 프랑스 내에서 가장 생산 면적이 넓은 구역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지중해성 기후와 자갈 토양, 두터운 진흙층 등의 영향으로 와인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산지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 탓에 생산 와인 가운데 80% 이상이 레드 와인이다. 수 세기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와인 생산지지만 과거에는 품질보다는 생산량에 초점을 맞춘 와인을 만든다는 인식이 강했다. 1980년대에 이후부터는 양상이 달라졌다. 주변 생산지보다 가격이 낮으며 실험적이고 독특한 시도로 만들어진 와인을 접할 수 있는 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 Chateau Puech-Haut 샤토 푸에슈오

샤토 푸에슈오는 랑그독 픽 생 루(Pic Saint Loup)에 1993년 설립된 생산자다. 지중해와 맞닿은 페루아에서 미네랄 리티가 가득한 와인을 만든다. 생산하는 빈티지마다 세계 곳곳의 와인 전문가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받으며 높은 품질을 인정받는다.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는 가운데 뛰어난 로제 와인을 만드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KWC 2020에서 트로피 로제 와인을 배출하며 그 명성을 입증했다. 수입사 와이넬

수상 와인리스트

- Trophy Rose** Chateau Puech-Haut Argali Rose
- Best France Red** Chateau Puech-Haut Tete De Belier Rouge
- Gold** Chateau Puech-Haut Prestige Rouge
- Silver** Chateau Lavabre Rouge
- Bronze** Chateau Puech-Haut Argali Rouge

▶ Gerard Bertrand 제라르 베르트랑

제라르 베르트랑은 프랑스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와인 생산자다. 1992년 설립된 이후부터 특색 있고 유서 깊은 랑그독 루시옹 지역 포도밭을 매입했다. 현재 14개의 에스테이트를 보유해 프랑스 남부에서 가장 큰 와이너리 중 하나로 성장했다. 2010년 이후 각종 와인 전문 미디어에서 남프랑스 와인 세계를 재정의한 생산자로 끊임없이 지목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IWC에서 선정한 '2012 최고의 레드 와인메이커'로 이름을 올렸다. 수입사 하이트진로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Gerard Bertrand Cigalus White
- Silver** Gerard Bertrand Cigalus Red
- Silver** Gerard Bertrand Grand Terroir Tautavel
- Silver** Gerard Bertrand Terroir Minervois
- Bronze** Gerard Bertrand Art de Vivre

▶ Roche Mazet 로쉐 마제

로쉐 마제는 1998년에 런칭된 브랜드다. 가격 부담이 적고 품질은 우수한 와인을 다수 선보인다. 20여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프랑스 현지에서 판매율 1위 브랜드로 일컬어진다. 2016년에는 전 세계에서 5,300만 병 이상의 판매고를 올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프랑스 와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평단의 인정을 받고 권위 있는 와인 대회에서 여러 수상 와인을 배출하며 뛰어난 상품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 Silver** Roche Mazet Cabernet Sauvignon

▶ Domaine De Baronarques 도멘 바로나르크

도멘 바로나르크는 랑그독 루시옹 지역에 자리한 와이너리다. 저명한 와인 생산자 그룹인 바롱 필립 드 로칠드(Baron Philippe de Rothschild) 경영자의 두 아들이 설립했다. 생산 와인은 최소 12개월 숙성 과정을 거치며 기술자의 조언에 따라 수확한 포도의 30%만 선별해 블렌딩하는 등 품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 역사가 짧지만 로칠드 그룹이 가진 다양한 노하우와 특성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단시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던 생산자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 Silver** Domaine De Baronarques Red

▶ Domaine Gayda 도멘 게이다

영국의 원예학자 팀 포드(Tim Ford)가 앤소니 레코드(Anthony Record), 뱅상 샹소(Vincent Chansault)와 함께 2002년 설립한 와이너리다. 프랑스 남부 카르카손(Carcassonne) 지역에서 25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피레네 산맥의 자연이 두드러지는 페루아에서 유기농 재배와 생산 방식에 따라 와인을 만든다. 포도를 모두 직접 수확하고 발마다 와인을 개별 양조하는 등 자연 그대로의 와인을 담기 위해 힘쓰는 곳이다. 수입사 KS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 Bronze** Domaine Gayda T'Air d'Oc Sauvignon Blanc

▶ LGI Wines 엘지아이 와인즈

알리앙 그리뇽(Allan Grignon)은 랑그독 와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남프랑스의 카르카손(Carcassonne)에 와이너리를 설립한다. 그는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난 와인을 생산하며 이름을 알렸다. 2013년부터 자비에 로저(Xavier Roger), 세드릭 듀퀴나이(Cedric Duquenoy)가 함께 경영을 맡았고, 와이너리 본연의 목표를 이어오며 다양한 와인 생산을 시도했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충족하는 와인들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입사 동원 와인플러스

수상 와인리스트

- Silver** Cuvee Dissenay Cabernet Sauvignon
- Silver** Cuvee Dissenay Pinot Noir

ALSACE 알자스

알자스는 보쥬(Vosge) 산맥의 동쪽, 라인 강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지대에 자리한 이유로 지난 역사 속에서 술한 수난을 겪은 곳이기도 하다. 땅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온 것이 있다면 다양한 페루아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한 알자스의 포도밭일 것이다. 알자스의 명품 와인들은 모두 화이트 와인으로, 이웃한 독일 라인 계열의 와인과 유사하다. 독일 접경 하에서 알자스는 독일의 의도적인 정책으로 평범한 와인을 대량 생산해야만 했다. 다시 프랑스 영토로 귀속한 후에는 와인 품질의 경쟁력이 떨어져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포도 품종을 엄격히 선별하고 여러 가지 자체 규제를 거쳐 차츰 품질이 개선되었고, 이제는 독특한 이미지와 스타일로 화이트 와인 산지의 명성을 되찾게 되었다. 리슬링, 게뷔르츠트라미너, 피노 그리, 뫼스까가 알자스의 노블 품종이다.



▶ Domaines Schlumberger 도멘 슬룸베르거

니콜라스 슬룸베르거(Nicolas Schlumberger)가 1810년 알자스 지방에 설립한 와이너리다. 포도밭 관리와 양조 과정에서 전통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해 포도밭 사이사이 벽돌로 만든 벽을 세우거나 말을 포도 재배에 활용하는 등 이색적인 모습도 보인다. 한편 도멘 슬룸베르거는 현재 알자스 지방에서 그랑 크뤼 포도밭을 가장 많이 소유한 생산자로도 알려져 있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리스트 Gold Domaines Schlumberger Gewurztraminer



BOURGOGNE 부르고뉴

부르고뉴는 북쪽으로 오세르(Auxerre)에서 남쪽 마콩(Macon)에 이르는 프랑스 동부 지역 와인 산지다. 보르도와 함께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로 손꼽힌다. 주요 거점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두 시간 가량 이동하면 부르고뉴에 닿는다. 중세 이후부터 북유럽과 지중해 분지를 잇고, 론과 파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교역로로 주목받았다. 부르고뉴 와인 산지를 직선거리로 계산하면 150km에 이른다. 대륙과 지중해의 영향을 골고루 받아 향이 풍부하고 우아한 포도를 기르는 데 유리하다. 오늘날 부르고뉴 와인이 큰 명성을 얻은 데는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재배 품종은 레드에 피노 누아와 가메, 화이트 품종에 샤르도네와 알리고떼 등이 있다. 백여 군데에 가까운 부르고뉴 아펠라시옹은 모두 그랑 크뤼, 프리미에 크뤼, 빌라주, 부르고뉴 등 네 개의 등급 분류 체계로 나뉜다. 그랑 크뤼에 가까울수록 높은 등급으로 본다.

▶ Maison Jean Loron 메종 장 로롱

메종 장 로롱의 역사는 300년 전 보졸레, 쉐나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설립자 장 로롱은 부르고뉴의 클리마 등에서 최상의 포도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그는 파리의 유명 와인 중개상인 니콜라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통 채널을 확장했고, 1945년에는 루이자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기술적인 영역을 넓혔다. 부르고뉴 남부와 보졸레에 위치한 총 135ha의 포도밭은 3세기 동안 장 로롱 가문의 지속적인 보수와 개발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Jean Loron Rift 71

▶ Vignerons de Buxy 비네롱 드 뷁시

1937년 부르고뉴 코뜨 샬로네즈(Cote Chalonnaise)의 포도 재배업자 120명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네고시앙 개념이 아닌 농부들의 조합으로, 그들의 조상 대대로 전해 온 전통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와인에 담겨있다. 현재 비네롱 드 뷁시는 400여의 재배업자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곳을 포함한 부르고뉴 5개 지역조합은 블라송 드 부르고뉴라고 하는 거대 조합을 결성했고, 이들은 부르고뉴 와인 생산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사 나무글로벌

수상 와인리스트 Gold Vignerons de Buxy Cremant de Bourgogne Blanc de Blancs

SOUTH WEST FRANCE 서남부 지방

서남부 지방 와인의 역사는 프랑스 와인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한다. 1세기 경 로마인들이 이 지방에 들어와 포도 경작을 시작했고, 14세기 까오르(Cahors) 마을의 와인은 당시 아비뇽 근처 까르뵘트라스(Carpentras)에 있던 교황 요한 22세가 즐겨 찾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중세기 수도원과 수사들에 의해 와인 경작이 융성하게 일어난다. 서남부 지방은 보르도의 외곽 지역부터 남쪽과 내륙 지방 군데군데에 펼쳐져 있다. 다시 말해 보르도가 속해있는 아키텐 지방과 미디 피리네 서쪽 지방을 아우르며, 16,000ha에 달하는 포도밭이 펼쳐진다. 알려진 AOC 지역으로는 가이얏(Gaillac), 베르제락(Bergerac), 까오르(Cahors), 마디랑(Madiran) 등이 있다.

▶ Plaimont 플레몽

1979년 프랑스 남서부 가스코뉴 지방의 세 마을 플레장스(Plaisance), 에냥(Aignan), 생몽(Saint Mont)의 1,100명의 생산자들이 모여 설립한 조합이다. 플레몽이란 이름도 세 마을의 이니셜을 조합해 만든 것이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토착 품종을 지켜오며, 가치치기 및 수확량 제한을 통해 포도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 손 수확을 고수하는 등 철저한 품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플레몽의 몇몇 와인들은 비노파라다이스를 통해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리스트

Gold Plaimont Echo Indigo White
Gold Plaimont Terres d'Artagnan White
Silver Plaimont Plenitude
Bronze Plaimont Echo Indigo Red
Bronze Plaimont Heritage White
Bronze Plaimont La Madeleine



LOIRE 루아르

루아르 지방은 서쪽의 브르타뉴(Bretagne) 반도를 거쳐 대서양으로 유입되는 루아르 강 일대를 가리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륙의 네베르(Nevers)에서 대서양 연안에 있는 낭뜨를 지나 생 나제르(St-Nazaire)의 하구에 이르는 루아르 강 유역을 일컫는다. 이곳의 와인 산지는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 네베르에서 투르(Tours)에 이르는 내륙 쪽의 상트르(Centre) 지역, 두 번째 이 지방의 거점 도시인 투르 주변의 와인 산지, 세 번째 앙주와 소뮈르(Anjou-Saumur) 일대, 마지막으로 대서양 언저리에 위치한 낭트(Nantes) 주변의 산지가 있다. 주로 재배되는 품종들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상트르 지역에 있는 상세르(Sancerre)와 뿌이 푸메(Pouilly-Fume)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소비뇽 블랑 와인들을 생산한다. 레드 품종에는 피노 누아가 사용된다. 중간 지대인 앙주, 소뮈르, 투르 지역에서 화이트는 슈냉 블랑, 레드는 까베르네 프랑이 재배된다. 마지막으로 대서양에서 인접한 낭트 지역에서는 멜롱 드 부르고뉴(Melon de Bourgogne)라 불리는 뮈스까떼(Muscadet)가 지배적이다.

▶ Domaine Filliatreau 도멘 필라트레오

도멘 필라트레오는 폴 필라트레오가 설립한 와이너리다. 풀이 자랐던 프랑스 앙주와 소뮈르 지역에는 1970년대만 해도 레드 와인 생산자보다 화이트나 로제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 많았다. 24세 때 아버지에게서 8ha 크기 포도밭을 사들인 것을 시작으로, 풀은 화이트 대신 뛰어난 소뮈르 샹피냐(Saumur Champigny) 와인을 직접 만들어 내며 붐을 일으켰다. 세가 불어나고 인지도가 높아져 현재까지도 많은 인기를 누리는 브랜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수입사 안시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Domaine Filliatreau Saumur Champigny

▶ Domaine Gadais 도멘 가데

루이 가데(Louis Gadais)가 1952년 설립한 가족 경영 와이너리다. 4대째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루아르 지역의 페루아에서 재배한 멜롱 드 부르고뉴로 최상급 뮈스까떼를 생산해 높은 품질을 인정받는다. 유기농 생산 방식을 따르며 47ha 규모 포도밭에서 엄선한 포도로 5가지 와인만을 만들어 낸다. 유럽은 물론 미국과 아시아 등 전 세계에 수출될 정도로 높은 명성과 인기를 자랑하는 생산자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Domain Gadais Les Perrieres Monopole

▶ Donatien Bahaud 도나시앙 바위오

동명의 설립자가 1929년 루아르 지역에 세운 와이너리다. 도나시앙 바위오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매일같이 포도나무를 관리하며 루아르 페루아가 가진 높은 잠재력을 꿰뚫어보았다. 더불어 뮈스까떼 와인의 우수성을 다시 드러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현재 도나시앙 바위오는 루아르 지역에서 앙주와 쉬농, 상세르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은 와인을 다양하게 생산하며 많은 호응을 얻는 생산자로 인정받고 있다.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Donatien Bahaud Sancerre N7